



F1 힘찬 스타트

23일 말레이시아 세팡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라운드 결승에서 F1 머신들이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키미 라이코넨(핀란드·페라리)이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日 그린 평정

日 선수와 연장 4차전 대접전
장거리 퍼트 성공...승부 갈라
일본투어 PRGR레이디스컵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일본그린을 평정하며 2008년 첫 우승을 일궈냈다.
신지애는 23일 일본 고치현 고난의 도사골프장(파72·6천364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요코하마타이퍼 PRGR레이디스컵 최종 3라운드까지 요코미네 사쿠라(일본)와 함께 4언더파 212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네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컵에 입맞춤 했다.
올해 본격적인 해외 투어에서 나선 신지애는 마침내 일본에서 우승을 신고하며 상금 1천440만엔(한화 1억4천여만원)과 함께 벤츠 승용차, JLPGA 풀시드권까지 얻는 기쁨을 누렸다.
비바람이 몰아친 가운데 강행된 마지막 라운드에서 신지애는 선두 요코미네에 1타 뒤진 2위로 출발했다. '마지막 라운드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신지애는 전반에 1타를 줄이는데 그쳤지만 보기없는 안정된 경기를 펼쳐 버디와 보기를 반복한 요코미네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신지애는 16번홀(파4)에서 프로 데뷔 후 공식대회 첫 아웃오브바운즈(OB)를 내면서 결국 2타를 잃어 버렸다. 요코미네는 이 덕에 2타차로 다시 앞서 나갔고 우승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18번홀(파4)에

서 흔들리는 드라이버 샷 이후 1.5m 보기퍼팅을 실패하며 연장전으로 끌려갔다.
18번홀에서 다시 진행된 연장전에서는 신지애의 장거리 퍼트가 들어가며 승부가 갈렸다.
연장 4차전에서 신지애는 두번째 샷을 핀 7m 옆에 떨어뜨리고 버디 퍼트를 홀에 집어 넣으며 승자가 됐다. 신지애의 우승으로 한국남자군은 올 시즌 일본부대에서 송보배(22·슈퍼라이어)의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2승을 올렸고 통산 75개의 우승컵을 수확했다.
이지희(29)가 1오버파 217타로 공동 4위, 김소희(25)는 3오버파 219타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오길비 선두...최경주 9위
WGC CA챔피언십 3R

제프 오길비(호주)가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연속 행진을 막을 수 있을까?
오길비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도달골프장(파72·7천266야드)에서 계속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CA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11번홀까지 2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14언더파로 선두를 지켰다.
최경주(38·나이키골프)의 약진도 돋보였다. 최경주는 14번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 4개만을 골라내며 중간합계 8언더파로 공동 9위를 유지했다.

재미교포 박진 19위
PGA 프레르토리코 오픈 3R

재미교포 박진(31·던롭스릭스)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프레르토리코 오픈 셋째 날 19위권으로 밀려났다.
박진은 23일 푸에르토리코 리오 그란데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천56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와 버디를 번갈아 하는 어수선한 스코어카드를 적어내면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가 된 박진은 전날 공동 8위에서 공동 19위로 떨어졌다.

동성·진흥·화순·효천고
황금사자기 야구 탈락

광주일고를 제외한 광주·전남팀들이 6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모두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2일 경기에서 광주 동성고는 덕수고 마운드를 공략하지 못해 0-5로 대패하고, 2회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진흥고는 투·타가 안정된 대구 상원고에 2-4로 역전 패했다.
화순고도 휘문고에 2-3으로 석패했고, 효천고는 충암고에 0-9로 8회 풀드 게임패했다.
광주일고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경기 충훈고와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 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최저 '핵심 회원권'비...
(062)351-0095

PAVV 2008 삼성 PAVV 프로야구
공·수·주 UP
'虎風'
심상치 않다
(최희섭), (서재응), (나지완), (김연훈), (김선빈), (발데스), (한기주)

KIA 시범경기 1위...V10 향한 포효

'명가'재건을 꿈꾸는 KIA 타이거즈가 파죽의 6연승으로 시범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다.
23일 우천으로 4개 구장에서 예정됐던 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2008시즌 시범경기가 마무리 됐다. 지난해 끝까지 KIA는 공·수·주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10승3패로 1위에 올라 강력한 우승후보로 급부상했다.
팀 타율은 0.243으로 전체 4위이지만 득점은 50점으로 2위다. 장성호-나지완-최희섭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폭발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타선을 운영했다는 반증이다. 부상 등을 이유로 장성호, 최희섭이 뒤늦게 시범경기에 합류했지만 이들 클린업 트리오의 팀 홈런 8개 중 5개를 뽑아냈다.
KIA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던 내야도 안정됐다. 발데스-김종국 키스톤은 8개팀 최강이다. 신인 김선빈도 야무진 수비로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특유의 기동성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달리는 야구로 KIA는 도루 25개를 성공시키며 SK에 이어 2위다. 선수들은 몸을 아끼지 않는 과감한 주루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파죽의 6연승...10승 3패
강력한 우승후보 급부상
팀 방어율 2.48의 짙짙한 야구는 투수왕국 재건 전방을 밝게 하고 있다. 3경기에 나선 용병투수 리마는 17이닝 동안 13피안타, 5탈삼진 1.06의 방어율로 2승을 챙겼다. 제구력 난조를 보이던 서재응도 지난 20일 우리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4피안타 5탈삼진으로 2실점하면서 호투, '컨트롤 마법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양현종, 전병두, 광정철, 유동훈, 한기주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3인 3색' 신인들도 눈에 띈다. 시범경기내내 4번을 꿰찬 나지완은 0.318의 타율과 2개의 홈런으로 개막전 4번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은 매서운 타격으로 7타점을 올려 최희섭에 이어 팀내 2위다. 빠른 발의 최용규도 지난 20일 우리와의 홈경기에서 신철인을 상대로 14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쳐 홈팬들의

연호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SK와 두산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지난해 창단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본 SK는 4승8패로 7위를 기록했고, 두산도 4승5패1무로 5위에 그쳤다.
에이스 배영수가 팔꿈치 부상에서 복귀한 삼성은 투타에서 안정된 전력으로 2위(8승3패2무)로 시범경기를 끝냈다. 외국인 사령탑을 앞세운 롯데도 7승 5패로 3위에 올랐다.
홈런 4방을 터뜨린 김태균을 비롯해 이범호, 클락 등의 위력적인 클린업트리오의 한화는 6승6패1무로 4위를 기록했다.
LG는 광주일고 출신 정찬현의 활약이 눈부셨다. 정찬현은 4경기에 나와 12와 1/3이닝 동안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선보여 신인왕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심통치 않은 방망이로 팀은 6위(4승7패1무)로 부진했다.
창단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신생팀 우리 히어로즈는 2승8패1무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